

한·터 전설에 나타난 애욕의 금기와  
그에 대한 전승의식 비교 연구\*  
-한국의 <달래강> 전설과 터키의 <신부바위(*Gelin  
Kayası*)> 전설을 중심으로-

조홍윤\*\* · 마이데 세린 츠\*\*\*

〈목 차〉

1. 서론
2. <달래강>과 <신부바위>에 나타난 금기적 애욕의 양상
3. 애욕의 금기에 대한 두 설화 집단의 전승의식
4. 결론

〈국문초록〉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애욕의 금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서사문학의 핵심 모티프 중 하나로서 꾸준히 재생산 되고 있다. 이는 그러한 금기와 위반의 문제가 보편적 인간 삶에서 미주하게 되는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편적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전승의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바로 한국의 <달래강> 전설과 터키의 <신부바위> 전설이다. 두 전설은 모두 사회적 윤리 관념으로 금기시되는 애욕의 대상으로 인한 갈등을 테마로 하여, 양자 공히 인간의 욕망보다 우위에 놓인 윤리적 금기의 작용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그러나 <달래강>에서는 근친상간의 금기 위에 놓인 인간 욕망의 자연적 일면을 인정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가치부여된 윤리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의문을 던지는 반면, <신부바위>에서는 남녀의 운명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사회 윤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윤리의 절대성을 옹위하는 방향의 전승 의식이 확인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윤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의 향유 집단은 인간의 욕망이 지닌 자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터키의 향유집단은 윤

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상반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실 욕망과 윤리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두 가치의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찾고 있는 한국과 터키의 전설을 비교하고 그 전승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 향유집단이 놓인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해답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달래강, 달래고개, 달래나 보지, 신부바위, 애옥의 금기, 욕망, 윤리, 한국, 터키, 전설, 전승의식**

## 1. 서론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랑’이라는 화두는 작게는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기에 이르는 인간 삶의 보편적 문제가 되어 왔다. 사랑의 담론은 오늘날 모든 권력의 담론에서 단절된 일종의 낭만으로서 존재하며 그에 대한 논의의 의의를 절실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sup>1)</sup> 사랑이 인간 삶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널리 향유되고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은 것처럼 그것

\* 이 논문은 교신저자의 지도를 받은 주저자가 2019년 10월 11일에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 유라시아 지역 대학생 한국학 학술 올림피아드(The 1st International Academic Olympiad of Korean Studies for Central Eurasian University Students, 11 Oct 2019, T.C İstanbul Üniversitesi)’를 통해 발표한 원고를 학술 논문의 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Gör. E-mail: hongyoun.cho@istanbul.edu.tr), 교신저자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학생(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Lisans Öğrenci), 주저자

1)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동문선, 2004, 12면.

이 인간 삶의 핵심이 되는 주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층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사랑에는 관계라는 이름의 금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랑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특별한 관계 안에 존재함으로써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사랑, 결코 허락될 수 없기에 숭고한 사랑보다는 음험한 욕망으로 비하되곤 하는 열정, 그로 인한 비극은 인류사를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사랑 이야기의 대표 모티프 중 하나이다.<sup>2)</sup> 요즈음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Cliché)로 인식될 만큼 진부한 이야기 소재이기도 하지만, 애욕의 금기 모티프가 지닌 그 전형성이야말로 그것이 그만큼 보편적인 인간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욕망과 윤리의 갈등에 대한 문제이며, 인간에게 운명지워진 보편적 삶의 화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와 같이 애욕의 금기에 관한 서사를 자아내는 인간 보편의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한국과 터키의 전설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고자 한다. “전설은 ‘현존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기 어려운 허구적 내용이라는 상반된 현상들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병치하여 사실과 허구,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향유자들의 일상적 통념을 전복하고 낯선 눈으로 세상을 재인식하게끔 한다. 이때 그와 같은 현실과 환상의 충돌에 의해 전설의 미적 특질인 비극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환상세계의 무한성이 현실의 고정성과 대비되면서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극명하게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sup>3)</sup> 다시 말해, “전설을 통해 인간은 그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새삼 자각하면서 그와 같은 한계 너머

2)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것도 ‘사랑’이라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떠나, 그와 같은 갈등을 모티프로 삼은 서사들이 육체적인 성욕의 문제로부터 대상과의 정신적인 일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망의 층위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그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애욕(愛慾)’의 개념이다. 위에 사랑은 숭고하며 욕망은 음험한 것이라는 식의 언술이 이루어진 것은 사랑과 욕망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욕망’을 보다 저열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서술한 것이다. 실상 사랑과 욕망을 완벽하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3)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23면.

에 존재하는 이상적 상태를 희구하게 된다. 보편적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식적 움직임을 촉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설이 지닌 인식적 기능이다.”<sup>4)</sup> 이에 애욕의 금기를 모티프로 한 전설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보편적 인간이 지닌 한계는 무엇인지, 그 극복을 위한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대상이 될 전설은 한국의 <달래강>과 터키의 <신부바위>이다.<sup>5)</sup> <달래강>에서는 누이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으로 죽음에 이른 남성 의 모습을 통해, <신부바위>에서는 남편의 동생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바위가 되어버린 신부의 모습을 통해, 양자가 모두 애욕의 금기로 인한 욕망과 윤리의 갈등을 비극적인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두 전설은 유사한 갈등 문제에 따른 유사한 결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전승 의식에 있어서는 매우 상반된 지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두 전설의 비교는 애욕의 금지 모티프에 내포된 욕망과 윤리의 갈등에 관한 인간 보편의 문제의식을 구명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상반된 전승의식을 만들어내는 한국과 터키 각국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 2. <달래강>과 <신부바위>에 나타난 금기적 애욕의 양상

본 장에서는 두 전설의 서사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거기 나타난 금기적 애욕과 그로 인한 비극의 양상을 상세히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 
- 4) Hongyoun Cho, *Türk ve Kore Göl Efsanelerinde Rastlanan “Köttü” kavramı ve Buna Yansıyan “Yol Kültürü”*, *Uluslararası İpek Yolu Sempozyumu*, ŞenYıldız Yayın, 2018, p.22.
- 5) 한국의 <달래강> 전설은 충주 달천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조사되었지만 해당 유형의 전설이 전국에 걸쳐 조사된 바 있는 광포전설의 하나이며, <신부바위>의 경우 터키를 대표하는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유형으로서 양자 모두 애욕의 금기에 관한 각국 전승집단의 문제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전설에 해당한다.

먼저 한국의 <달래강>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달래강>은 지명유래전설의 성격을 띠는 바 서사에 결부된 지형의 성격에 따라 대개 <달래강> 혹은 <달래고개>라는 이름으로, 또는 서사 결말부에 제시된 누이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 <달래나 보지>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유형 중 많은 각편이 <달래고개>라는 명칭으로 채록되어 있긴 하지만, 서사의 주요 이미지로서 ‘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는 제목에서부터 물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달래강>을 유형명으로 준용하기로 한다.

<달래강>은 손진태<sup>6)</sup>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이후 한국 구비문학 연구사의 초기에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전설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달래강>을 홍수설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그에 결부하여 전설의 신화적 잔재에 주목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연구에서부터,<sup>7)</sup> 정신분석<sup>8)</sup>이나 여성주의<sup>9)</sup>적 관점에서 <달래강>의 주제와 심층의식에 주목한 연구까지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공통적으로 이 서사에서 문제시 되는 근친상간의 금기가 인간의 욕망과 길항함으로써 남매의 비극을 낳았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본격적으로 <달래강>의 서사에 나타난 애욕의 금

6) 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3: 조선민담집』, 향토연구사, 1930, 43~45면.

7) 최래옥, 「한국홍수설화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제9집, 민속학회, 1976, 83~86면; 최래옥, 「한국홍수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민속학』 제12집, 민속학회, 1980, 207~231면; 강진옥, 「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천혜숙, 「남매혼신화와 반신화」, 『계명어문학』 제4집, 한국어문연구학회(前 계명어문학회), 1988, 475~493면; 나경수,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제26집, 한국언어문학회, 1988, 197~220면 등이 있다.

8) 정유석·한동세, 「철원 「달래산」 전설에 대한 심리학적 소고」, 『신경정신의학』 제6권 제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67, 35~39면; 이홍우, 「<달래나 보지> 전설의 구조와 의미」, 『계명어문학』 제8집, 한국어문연구학회(前 계명어문학회), 1993, 151~181면 등이 있다.

9)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1) -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201~221면; 김영희, 「‘유희하는 여성의 몸’과 남성 주체의 우울 - 비극적 구전서사 <달래나 보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51집, 동양고전학회, 2013, 75~117면 등이 있다.

기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서사를 간략히 제시한다.<sup>10)</sup>

옛날에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돌이서 강을 건너면서(혹은 고개를 넘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옷이 모두 젖었다. 젖은 옷이 달라붙어 몸매가 드러난 누이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남동생(혹은 오빠)은 자신도 모르게 욕정을 느껴 발기하고 말았다. 남매간에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누이에게 먼저 가라 하고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바위 위에 자신의 성기를 놓고 돌로 찢어 자살했다. 동생이 따라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누이는 길을 되돌아와 동생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죽은 이유를 짐작하고는 "달래나 보지." 라고 하며 울었다고 한다. 이에 남매가 건넌던 그 강을 '달래강' 이라고(혹은 남매가 넘던 고개를 '달래고개' 라고) 부르게 되었다.

위에 제시된 대로, <달래강>의 서사는 물에 젖은 누이의 몸에 성욕을 느낀 남동생이 죄책감으로 자결에 이르는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이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장면은 누이의 실루엣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것보다도 이를 죄악시 하여 자신의 성기를 돌로 찢어내는 모습이다. 근친에 대한 애욕을 지니게 된 것만으로 진정 자기 자신을 그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처벌해야만 하는 것인가.

실상 인간이 이성에게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sup>11)</sup> 그러나 대상이 되는 이성이 욕망의 주체와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와 같은 본능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위의 서사 속에서도 동생은 누이에게 느낀 성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누이에 대

10) 한국에서 조사된 <달래강> 전설 유형의 각편은 총 37개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각편의 공통 서사를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달래강>의 서사를 제시한 것이다. 그 외 다양한 <달래강>의 각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희, 앞의 논문, 83~88면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11) 이와 같은 언술은 어디까지나 '성적 욕망을 품는 것'에 대한 것이며, 그 성욕을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방향으로 분출하는 것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한 애육은 근친간의 성적 결합을 금지하는 윤리의 프레임을 벗어난 것이기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 친족 간의 성적 결합은 절대적 금기로 여겨진다. 그와 같은 사회적 금기는 가정의 교육을 통해, 또 이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듭 강조되며, 그러한 윤리적 명령은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강하게 내면화되어 그들이 각각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윤리의 세례를 통해 인간은 친족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는 상황 자체를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욕망으로 인한 윤리 위반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달래강>의 남동생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다. 강하게 내면화된 윤리에 의해 친족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우연한 상황 속에서 대상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받게 되고 무의식적인 욕망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달래강>에서 우연히 물에 젖어 드러난 누이의 몸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성욕을 느낀 남동생처럼 말이다. 여기서 남매 단 둘이 놓인 ‘강’이라는 공간은 ‘문명’이라는 ‘윤리의 공간’을 벗어난 ‘자연’, 즉 ‘본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에 더하여 ‘물’은 인간의 무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 원형 상징이다.<sup>13)</sup> 즉 남매는 윤리의 체계를 벗어난 자연의 공간 속에 놓여 있으며, 물이라는 원초적 무의식의 공간을 경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동생은 윤리의 체계가 규정한 친족이 아닌 자연적 여성의 몸을 목격하게 되고, 본능적이고도 무의식적인 반응으로서 성욕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의식적 욕망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확인되었을 때, 동생은 다시 그의 몸에 새겨진 윤리의 명령을 의식한다.

12) 남매 둘이 자연적 공간 속에 놓임으로써 본능적 욕망이 자극받게 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이홍우, 앞의 논문, 174~176면; 배도식, 「달래고개 전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자의식」, 『동남어문논집』 제21집, 동남어문학회, 2006, 107면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13)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122~125면;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2006, 87~90면.

성욕의 증거인 발기된 성기를 직시하는 가운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윤리의 경계선을 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나는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할수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클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욕망을 느낀 것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달래강>의 동생처럼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줌으로써 그와 같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질지 모른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욕망과 윤리의 갈등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린다. 당연하게도 윤리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은 갈등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하기에 그와 비슷한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잊음으로써 그 기억을 의식의 아래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버리고 만다.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부터 우연한 성적 자극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 정신 발달의 초기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프로이트(S. Freud)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개념을 통해 말했듯,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성적 욕망(id)이 초자아(super ego)의 억압을 받아 자아(ego)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도 인생의 초기부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금지된 애정(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달래강>의 동생이 누이에게 느낀 성욕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면으로 받아들일 법하다. 그러나 동생은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돌로 찢어 버린다. 이처럼 ‘성욕’이라는 항문기적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억압하는 완벽주의 경향을 지닌 이들은 가학적인 초자아의 통제에 짓눌린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욕구와 감정을 기저귀에 지린 배변처럼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와 같은 수치심은 그들의 정신을 불에 달군 부지깥이로 들쭉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한다. 고통스러운 분노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칼로 잘라내듯 분리시켜 통제하는 것이며, 이에 접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311~321면.



점 더 스스로의 완벽함에 집착하게 된다.<sup>15)</sup> 윤리적인 완벽주의에 집착할수록, 스스로 윤리적인 인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내면화할수록 윤리를 벗어난 자기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다 결국 정신적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 휩싸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제거되는 문제의 근원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 그것을 투영한 자신의 신체, 자기 자신의 존재일 수도 있다.

<달래강>의 동생도 그와 같은 가학적 초자아의 통제, 윤리적 완벽주의에 짓눌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불편한 감정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갈등 처리 과정을 통해 갈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가 너무나 윤리적 인간이었기에 윤리를 벗어난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혐오하며 갈등의 근원인 자신의 신체를 분리해냄으로써 스스로를 처벌하는 데 이른 것이다. 가학적인 초자아에 기인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불완전한 자신의 일부를 자기 존재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은 비단 <달래강> 속 동생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고통의 메커니즘이며, 누구나 크든 작든 일생을 통하여 그와 유사한 심리적 갈등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sup>16)</sup> 이처럼 <달래강> 속 동생의 모습은 ‘욕망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지닌 불편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동시에 ‘윤리적 주체’로서 자신의 욕망에 괴로워하는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극단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운명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죽음’을 맞는 동생의 이미지, 그것을 통해 그와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달래강> 전설이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금기 위반의 욕망으로 인한 윤리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면 터키의 <신부바위> 전설은 좀 더 의식적

15) 김충기, 「허상으로 벗어난 완벽함 - 강박증 2」, 『정신의학신문』, (주)정신건강연구소, 2017.01.09.

16) 정유석·한동세, 앞의 논문, 38~39면 참조.

인 측면에서 애욕의 금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둘 모두 금지된 애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신부바위>의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에르주룸(Erzurum)시 아시칼레(Aşkale) 칸딜리(Kandilli)지역의 메르디벤(Merdiven)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적령기를 맞은 총각을 위해 총각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예쁜 신부를 찾았다. 그 지역의 혼인 전통에 따라 신랑은 신부를 직접 데리러 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신랑의 가족과 지인들이 신부를 찾아가 신랑에게로 인도해 올 때, 서로를 보게 된 신랑의 남동생과 신부는 첫눈에 서로 반해 사랑에 빠져 버렸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길을 걸었다. 그러다 결국 신랑의 집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두 사람은 바위가 되어버렸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들을 '신부바위'라 불렀으며, 부정한 관계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지나갈 때마다 작은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다.<sup>18)</sup>

17) 다수의 구비문학 조사 집성 결과물을 통해 구비문학 원자료에 해당하는 각 편들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터키의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집적된 자료들을 통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재구해 내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그에 따라 구비문학 원자료를 학계에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에 대한 작품론적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별도의 구비문학 조사를 통해 스스로 원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구비문학 연구자에 의해 재구되고 윤문된 자료를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제시된 텍스트는 터키 셀чук 대학교(Selçuk Üniversitesi)의 구비문학 연구자인 Saim Sakaoğlu 교수가 출간한 “아나톨루의 101가지 전설(101 Anadolu Efsanesi)”에 수록된 것이다.

18) Erzurum'un Aşkale ilçesinin Kandilli bucağına bağlı Merdiven köyünde, evlenme çağına gelen bir delikanlıya komşu köylerinin birinden güzel gelin getirilmektedir. Gelin getirecek alayda damadın erkek kardeşi de bulunmaktadır. Bölgenin adetine göre damat, gelin getirecek alayda bulunmaz, evin damında onların gelişini bekler. Gelin getiren alayın bir istirahat anında yengesini gören damadın kardeşi, onun güzelliğine vurulur, içine bir ateş düşer. Artık aklı hep gelindedir. Delikanlı geline baktıkça bir hoş olur; gelin de bir müddet sonra onun bakışlarına karşılık vermeye başlar. Bunlar birbirlerine baka baka köyün giriş yerine kadar gelirler. Anlatıldığına göre düğün alayı tam köye gireceği sırada gelinle damadın erkek kardeşi taş kesilirler. Köylüler, girişteki bu taşlara "Gelin Taşları" adını vermiştir. Hatta, bu iki genç arasındaki,

위에서는 결혼을 위해 신랑의 집으로 가던 신부와 신랑의 동생<sup>19)</sup>이 서로 첫 눈에 반함으로써 일어나는 금기 위반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사실 ‘첫 눈에 반한다.’라는 말은 운명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특별한 판단의 과정을 경유하지 않은 채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존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속된 애욕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선 종교적 황홀의 경지로 여겨진다.<sup>20)</sup> 이렇게 본다면 아직 서로를 알지 못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 서로를 보자마자 사랑을 느낀 신부와 동생의 관계가 더 순수하고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윤리에 의해 둘의 순수한 감정은 부정된다. 신부는 이미 신랑에게 정해진 짝이며, 그러므로 동생과 신부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감정이다. 이렇게 <신부바위> 또한 <달래강>처럼 보편적인 욕망과 윤리의 갈등 구도를 만들어낸다. 신부와 동생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던 윤리의 문제가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사실 <신부바위>에서 제시된 상황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신랑과의 관계로 인해 실제적 애정의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은 개인의 욕망과 선택이 공동체와 가족의 윤리에 의해 과도하게 억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편적인 욕망과 윤리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불합리한 것이라 해도 당대에 그 사회를 유지하였던 기준율이었던 것이

---

köylülerce uygun görülmeyen ilgiden ötürü de buradan gelip geçenler taşlara tükürür veya taş atarlarmış(Saim Sakaoglu, Gelin Taşları, 101 Anadolu Efsanesi, Damla Yayınevi, 1978, pp.15-16).

19) 이후로는 ‘동생’으로 지칭한다.

20) 롤랑 바르트, 앞의 책, 271~279면.

21) <달래강>에서 문제시 되는 욕망이 ‘누이-남동생’의 금기적 욕망에 대한 것이고, <신부바위>의 문제는 보다 고차원적인 ‘사랑’의 문제가 ‘신랑-신랑의 남동생-신부-마을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서사를 같은 문제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과 육체적 욕망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실상 불가능하며, 근친상간의 금기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애욕의 금기 모두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한 윤리의 문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두 서사를 궁극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분명하므로, 이 이야기가 인간의 욕망과 윤리의 갈등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러한 불합리함이 신부와 동생의 순수한 사랑과 대비되어 두 사람의 만남을 더욱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 그들의 단지 서로를 바라볼 뿐이다. 어떠한 성적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 마디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완성되는 사랑, 누구나 꿈꾸었을 이상의 형태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둘의 사랑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 현실로부터 완전히 부정되기 전에, 즉 신부가 신랑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화되기 전에, 둘은 마주본 그 모습 그대로 바위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바로 그 바위야말로 <신부바위> 전설의 증거물로서 전체 서사를 응결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한다.<sup>22)</sup> 전설이 증거물로 표상되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에 눈뜨게 한다면, <신부바위>의 서사가 내포한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상징이 곧 두 사람이 변신한 바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의 변신이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야기의 변신 화소는 이야기 속 존재가 스스로의 형상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새로운 형상을 통해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이에 ‘변신’이라는 화소는 필연적으로 변신 주체가 인지한 한

22) 엘리아테는 ‘이미지(image, 形象)’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식 수단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의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 주는 총체로서 작용함을 역설한 바 있다(미르야치 엘리아테,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15면).

23) 이야기의 변신 화소에 대하여 오비디우스는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들입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에 있다가 짐승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하였다(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민음사, 1997, 507면). 이는 이야기 속 존재가 고정상을 지니지 않으며, 한계에 부딪친 존재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형상을 입는 과정이 변신임을 말한다.

계상함과 그것을 뛰어넘어 실현시키고자하는 욕망을 내포한다.<sup>24)</sup> 이에 신부와 동생은 인간의 형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성취를 위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바위라는 새 형상을 입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부와 동생이 인간의 형상으로써 직면한 한계란 분명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로 인해 맞닥뜨린 윤리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바위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위의 존재적 속성이 어떠한가를 상기하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바위는 생명이 없으므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영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바위에 생명이 없다는 상식도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는 자주 전복되곤 한다.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돌이 변하여 인간이 되는 화소가 존재하는 바, 돌과 바위는 ‘절대적 실재, 생명,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sup>25)</sup> 그렇다면 바위는 아직 생명력을 발현하지 않은 채 신성한 생명의 가능성을 단단한 껍질 속에 내재한 영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위는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뎌내면서도 그 형태적 항상성을 견고히 유지하며 이는 불변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바위는 ‘생명을 내포한 죽음’, 그리고 ‘영속과 불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설에서 신부와 동생이 화한 바위는, 완전한 사랑을 느낀 그대로 숨을 멈춤으로써 오히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사랑을 지속하고자 했던 두 사람의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길 위에 서로를 바라보던 모습 그대로 멈추어, 인간 사회의 윤리적 제약 속에서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영원불변토록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변신이 영원히 변함없는 신성한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그들이 사회 윤리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의 형상을 포기함으로써 사랑을 성취하고자 한 그들의 모습도 결국은 애욕의 금기라는 윤리의 그물망에 얽혀 멈추어버리고 마

24) 조홍윤,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겨레어문학』 제57집, 겨레어문학회, 2016, 408면.

25) 미르아치 엘리아데,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47면.

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달래강>과 <신부바위>는 애욕의 금기를 넘어섬으로써 발생하게 된 문제 상황을 통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그것을 억누르는 윤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둘 모두에서 윤리의 그물에 포획되어 죽음을 맞거나 바위로 변해 멈추어 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욕망보다 우위에 놓여 있는 윤리의 작용과 그로 인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장을 통해 한국과 터키, 두 설화 향유집단의 전승의식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설화 향유집단이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해답을 찾고 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 3. 애욕의 금기에 대한 두 설화 집단의 전승의식

<달래강>에서 나타난 욕망과 윤리의 갈등에 대해, 한국 향유집단의 전승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달래나 보지”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누이의 모습이다. 이러한 언술은 중의적 표현으로서 두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잘 달래 보지’,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몸을 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sup>26)</sup> 이는 자신도 모르게 애욕의 금기를 넘어선 동생의 죄책감도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그도 아니라면 죄책감에 휩싸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욕망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다는 인식이다. 결국 <달래강> 전설의 향유집단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대하여 윤리의 절대성 보다는 인간 욕망의 자연성을 긍정하는 방향의 전승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물론 <달래강>의 전승의식이 절대적 윤리에 대한 옹호에 기반하고 있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sup>27)</sup> 그러나 전체 서사를 종결짓는 누이의

26) 배도식은 누이의 독백이 지닌 이중적 의미에 대하여 ‘몸을 달라고 해보지’, ‘몸을 달라고 나를 잘 달래보지’의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를 ‘달래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실하지 않다(배도식, 앞의 논문, 111면).

독백이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거기 깃든 생각이야말로 이 전설에 대한 전승의식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독백에 대하여 조현설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사실 이 탄식은 질서와 욕망, 포획과 탈주, 도덕과 윤리학 사이의 갈등에서 솟아나는 깊은 신음이다. 신음의 비극성! 세상에 목숨을 이기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심판의 체계로서의 도덕은 목숨을 이긴다.”<sup>28)</sup> 이와 같은 논의는 인간을 심판하는 절대적 윤리로 작용하는 근친상간의 금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어야 할 인간의 생명보다 절대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가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민한다. 한국의 향유집단은 그와 같이 인간을 억누르는 윤리적 강요에 대하여 누이의 입을 통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뿜고 있는 것이다. 윤리가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수 없다는 의식이 그 안에 있다.<sup>29)</sup>

물론 그와 같은 전승의식이 곧 누이와 남동생의 근친상간을 용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의 질서와 생물학적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상간의 금기는 분명 지켜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친족

27) <달래강> 전설의 전승의식에 대하여 배도식은 오빠의 자기 처벌을 윤리 도덕의 승리로 평가하고, 전설의 향유자들 또한 그와 같은 윤리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이 전설의 전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같은 논문, 112면).

28) 조현설, 앞의 논문, 2000, 215~216면.

29)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달래강>의 서사가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억누르는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고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욕망에 대한 윤리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전승의식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논한다. 특히 김영희는 누이의 독백 후 자결하는 내용의 서사를 기본형으로 보고, 이는 결국 최악의 근원이 누이에게 있으며 그로부터 여성의 몸을 최악의 근원으로 전유하는 전승자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논하기도 하였다(김영희, 앞의 논문, 103~110면). 그러나 누이가 자결하는 유형의 각편보다 자결하지 않는 각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누이의 죽음이 곧 스스로의 죄에 대한 처벌이며 <달래강> 전설에 대한 전승자들의 의식을 반영할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또 누이의 자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 동인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아닌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 지을 근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절대적 윤리의 강압에 시름하는 전승자들의 문제의식이 누이의 독백 속에 깃들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에게 우연히 애욕을 느낀 것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죽을 이유가 될 정도로 그러한 금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것처럼 “달래나 보지”라는 말은 윤리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윤리의 절대성을 부인한다. 이것은 애욕의 금기라는 것도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절대적으로 신성한 법칙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를 통하여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윤리와 금기는 인간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고, 윤리와 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한 금기들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으로 슬한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이는 비단 봉건사회의 악습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sup>30)</sup> 전통적인 한국 사회 또한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로 지배되었으며, 그러한 윤리가 종종 인간의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달래강> 속 누이의 말은 인간의 생명보다 윤리를 더 가치로운 것으로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 보다 값진 윤리는 없다고 외치고 싶었던 전승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신부바위>의 전승의식은 한국의 <달래강>에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부바위>에 형상화된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대해 터키 향유집단의 전승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길가에 놓인 신부바위를 지나가며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애욕이 전승집단으로부터 용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의 욕망보다는 윤리를 더 가치롭게 인식하는 전승의식이 그들 내면에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 네르신 페이지올루(Nesrin Feyzioğlu)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이 전설의 주요 모티프들은 터키 전통의 가정 문화가 지닌 한계와, 가족 간의 애정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가족 모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설의 서사는 단순히 두 사람이 바위로 변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바위가 된 이후에도 사람

30) 종교적 금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친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honor killing)’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들이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모티프의 완성을 이루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이에 따르면 <신부바위>의 서사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지닌 순수성의 여부는 ‘건강한 가족 모델 지키기’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위한 윤리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잘 보여주며, 이와 같은 인식이 곧 <신부바위>에 대한 터키 향유집단의 전승의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전설에 대한 한국과 터키의 전승의식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다. <달래강>에서는 누나에 대한 남동생의 애욕을 ‘인간이기에 있을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마음을 죽을죄로 여기도록 하는 윤리적 강요의 문제성을 지적한다. 욕망과 윤리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이 지닌 자연성을 좀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부바위>는 남녀가 바위가 된 후에도 여전히 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욕망과 윤리의 갈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용위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차이를 자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한국과 터키 사회를 지배한 전통 윤리의 성격 차이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빚어졌으리라 본다. 한국과 터키는 공통적으로 엄격한 전통 윤리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배우자 이외에는 어떠한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던 터키의 전통 윤리-이슬람의 율법 아래에서 보통의 남녀도 아닌 신부와 신랑의 동생사이에 발생한 애욕의 금기 위반은 결코 인정될 수 없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역시도 오랜 시간 남녀유별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발생한 근친상간의 금기

31) “Yukarıdaki efsane metninde ana motifler, geleneksel ailenin sınırlarını, aile içi yakınlıkların çerçevesini, yasakları göstermektedir. Sağlıklı modelin korunması için efsanenin temelindeki taş kesilme ile yetinilmediği, tü kürmek ve taş atmakla perçinlendiği açıkça görülmektedir(Nesrin Feyzioğlu, Gelin Kaya Efsaneleri ve Taş Kesilme Motifi Üzerine Bir Değerlendirme, Gazi Türkiyat. 2011, pp.126-127).”

위반은 사회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sup>32)</sup>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친상간의 금기는 분명 절대적인 윤리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유교 윤리가 일종의 철학 사상으로서는 학적(學的) 기반을 지닌다면, 터키의 전통 윤리는 종교 사상으로서의 정체를 지녔다는 차이가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종교의 교리와 의례는 속(俗, profane)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성(聖, sacré)적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대극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을 이루는 성현(聖現, hiérophanie)의 체험을 그 본질로 한다.<sup>33)</sup> 따라서 종교 사상은 종교적 성현 체험의 과정을 통해 인간에게 신체화 되고 인간의 전(全)의식에 걸쳐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인간의 의식에 대한 종교 사상의 침투력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상보다도 강력하며, 그 신봉자의 의식과 행동에 무엇보다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종교적 율법의 옷을 입은 윤리의식에 기반한 터키 향유집단의 전승의식은 완고하게 윤리의 절대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의식적 차원의 규정력을 지녔던 철학 사상 기반의 윤리의식에 지배되었던 한국의 향유집단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애욕의 금기를 테마로 한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서로 다른 답을 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두 방향의 어느 한 면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설의 향유집단이 찾아낸 하나의 답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답일 수 없고, 그저 가능한 여러 해답 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 인간의 욕망과 윤리는 인간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각각 인간의 발전을 위한 힘으로, 인간이 건강한 삶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므로 둘 중 욕망 하나만을, 혹은 윤리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다만 서로가 찾은

32) 그와 같은 윤리적 강령은 현재까지도 두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히잡(Hijab)이나 부르카(burka)로 배우자를 제외한 남성에게 대한 신체 노출을 차단하는 문화가 잔존하며, 그 착용 비율은 근래에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타국에 비해 보수적인 성윤리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곤 한다. 이는 두 사회를 지배했던 성 윤리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미르아치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글방, 1995, 11~15면.

반대 방향의 답을 확인하는 것 자체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답을 내는 상대방의 존재는 언제나 소중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인식은 확장되고, 각각의 답이 시너지를 만들어 변증법적인 인식의 발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 확장과 발전의 가능성에서 두 전설에 대한 비교 문학적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달래강> 전설과 터키의 <신부바위> 전설을 비교함으로써 애육의 금기를 테마로 한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대해, 두 나라의 향유집단이 찾은 해답을 확인해 보았다. 두 전설은 모두 사회적 윤리 관념으로 금기시되는 욕망의 대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내용으로 한다. 양자에 공히 인간의 욕망보다 우위에 놓인 윤리적 금기의 작용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형상화되지만, 이와 같은 결말에 대하여 한국과 터키의 전승의식은 서로 전혀 다른 지향을 보여주었다.

<달래강>에서는 누이에 대한 남동생의 무의식적 욕망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가치부여 된 윤리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 의문을 던진다. 윤리적 금기라 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의논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윤리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부바위>에서는 남녀의 운명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사회적 윤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윤리의 절대성을 옹위하는 방향의 전승 의식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윤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기에, 윤리의 틀을 벗어난 남녀의 애육은 곧 죄일 뿐이다. 이때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욕망과 윤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하여 한국의 향유집단은 인간의 욕망이 지닌 자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터키의

향유집단은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상반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실 욕망과 윤리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두 가치가 충돌할 때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완전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가능한 여러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찾는 한국과 터키의 전설을 비교하고 그 전승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의 향유집단이 놓인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해답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다. 그와 같이 보편적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답을 찾고 인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문학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애욕의 금기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확인해감으로써 인간 삶의 절대 난제인 욕망과 윤리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나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592면.
- 강진옥, 「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0, 1~285면.
- 김영희, 「‘유혹하는 여성의 몸’과 남성 주체의 우울 - 비극적 구전서사 <달래나 보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51집, 동양고전학회, 2013, 75~117면.
- 김충기, 「허상으로 빚어낸 완벽함 - 강박증 2」, 『정신의학신문』, (주)정신건강연구소, 2017.01.09. 5~6면.
- 나경수,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제26집, 한국언어문학회, 1988, 197~220면.
-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사랑의 단상(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동문선, 2004, 1~342면.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글방, 1995, 1~222면.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1~224면.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1~238면.
- 박종성, 「긍정의 신화, 부정의 전설-충주 달천(달래강) 전설을 읽으며」,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학술대회지』,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1, 69~72면.
- 배도식, 「달래고개 전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자의식」, 『동남어문논집』 제21집, 동남어문학회, 2006, 99~123면.
- 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3: 조선민담집』, 향토연구사, 1930, 1~437면.
-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민음사, 1997, 1~380면.
- 이홍우, 「<달래나 보지> 전설의 구조와 의미」, 『한국어문연구』 제8집, 한국어문학회, 1993, 151~181면.
- 정재서,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정재서의 신화읽기(동아시아 이미지의 계보학)』, 문학동네, 2001, 1~303면.
- 정유석·한동세, 「철원 「달래산」 전설에 대한 심리학적 소고」, 『신경정신의학』 제6권 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67, 35~39면.

- 조흥윤,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겨레어문학』 제57집, 겨레어문학회, 2016, 399~421면.
-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201~221면.
-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부석(望夫石)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119~150면.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1~798면.
- 천혜숙, 「남매혼신화와 반신화」, 『계명어문학』 제4집, 한국어문연구학회(前 계명어문학회), 1988, 475~493면.
- 최래옥, 「한국홍수설화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제9집, 민속학회, 1976, 83~86면.
- 최래옥, 「한국홍수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민속학』 제12집, 민속학회, 1980, 207~231면.
-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숲, 2002, 1~432면.
- 칼 구스타프 융,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영웅과 어머니 원형』, 숲, 2006, 1~534면.
- Hongyoun Cho, Türk ve Kore Göl Efsanelerinde Rastlanan “Köttü” kavramı ve Buna Yansıyan “Yol Kültürü”, *Uluslararası İpek Yolu Sempozyumu*, ŞenYıldız Yayın, 2018, pp.21-30.
- Saim Sakaoğlu, Gelin Taşları, *101 Anadolu Efsanesi*, Damla Yayınevi, 1978, pp.1-271.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boo of Love and the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

– Focusing on "Dallae River" and "Bride Rock", the  
Legends of Korea and Turkey –

Cho, Hongyoun(TR Istanbul Univ.)

Maide Serin Çığ(TR Istanbul Univ.)

The taboo of love for socially unacceptable objects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as one of the core motifs of narrative literature in both East and West. This is because such problems of taboos and violations imply the conflict of desires and ethics encountered in universal human life. However, some examples show a completely different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 on such a universal problem. They are the legend of the Korean "Dallae River" and the Turkish "Bride Rock(Gelin Kayası)". Both legends are based on the taboo of the love for the object of desire which is contraindicated by the concept of social ethics. So the ethical taboos, both of which are valued above human desires, shape the protagonist's tragic ending. However, in the "Dallae River", we question the situation in which an absolutely valued ethic hurts humans by acknowledging the natural aspects of human desires which are valued above the incest taboos. In The "Bride Rock", the rituals of transmission in the direction of advocating the absoluteness of ethics were confirmed in a situation where the fateful and pure love of men and women causes a conflict with social ethics. In a situation where love creates

a conflict with social ethics, a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 in the direction of the absoluteness of ethics has been confirmed. In situations where human desires and ethics conflict, Korean enjoyment groups recognize the naturalness of human desires, while Turkish enjoyment groups emphasize the absoluteness of ethics and both are looking for opposite answers to the same problem in different ways. Desire and ethics ar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life. Therefore, taking and discarding either side in the conflict of two values cannot be the perfect answer. In this regard,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compare the legends of Korea and Turkey looking for different answers to this problem and to confirm their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 may be an opportunity to expand each other's perception by checking the non-recognized answers in the socio-cultural situation of each enjoyment group through the other party. This can be an opportunity to expand each other's awareness.

**Key words** : Dallae River, Dallae Pass, Dallaenaboji, Bride Rock, Taboo of Love, Desire, Ethics, Korea, Turkey, Legend,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

논문 받은 날: 2019년 11월 14일

심사 기간: 2019년 11월 29일~12월 10일

심기로 한 날: 2019년 12월 17일